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7. Vol. 28. No. 1. pp. 99~125.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7.28.1.99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윤재원** · 강영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은 개인심리학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밟은 후, 각 50분 10회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광역시에 소재한 1개 중학교의 3학년 총 36명을 대상으로 각각 12명씩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세 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SIS-A의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대인관계 지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효과 유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이 끝난 4주 후 추수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 참여한 집단원이 통제집단보다 BASIS-A로 측정한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점수의 정도가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실험집단에 있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대인관계 지향성의 정도가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모든 추수 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발달되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효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적 관심, Adler 상담, 청소년, 대인관계 지향성, 개인심리학

* 본 연구는 윤재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자료를 요약한 것임.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1저자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lavieenrose@jnu.ac.kr

Ⅰ. 서 론

오늘날의 청소년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첫 번째 위기의 원인은 청소년 시기가 급격한 신체, 심리적 변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신체적 발달과는 달리 심리적 발달은 그 속도가 더디고 혼란스러움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Sigmund Freud, Erik Erikson, Stanley Hall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혼란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 '자아 정체감의 위기가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체적인 모습과는 달리 심리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김준호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인의 발달적인 위기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 위기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5위로 조사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2개국 중에서는 최하위였다. 부분별로는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활동 참여 실적을 평가한 '관계 지향성'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사회적 협력'에 대한 부분이 36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조영하, 김태준, 2011).

이렇듯 청소년에게 있어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는 한 가지 이유로 급격한 핵가족화 현상을 들 수 있다(정하성, 2008). 청소년이 최초로 그리고 가장 긴밀하게 관계 맺는 대인관계의 대상은 가족이다. 또한 가족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정서나 사회성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권석만, 2009).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드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청소년은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동체 느낌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 내의 분위기가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Alfred Adler는 오래 전에 강조하였다. Adler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고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Sweeney, 2005).

사회적 관심은 Adler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독일어인 *gemeinschaftsgefühl*을 번역한 것이다. 영어로는 공동체적 느낌(community feeling), 협력(cooperation), 공동체적 관심(community interest),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며, 이는 Adler가 직접 'social interes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심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번역된 용어들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Ansbacher, 1991).

Adler(1935)는 인간은 누구나 열등한 존재이며, 이러한 개인의 열등성을 사회적 관심을 통해 극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관심을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기여하도록 하는 공동체적 느낌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선보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관심의 형태라고 언급하였다. Adler 이후의 Dreikurs(1971)와 같은 개인심리학 학자들은 사회적 관심을 타인 혹은 인류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확장시켰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지각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우월성 콤플렉스 혹은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다(Crandall, 1980). 이와 같은 콤플렉스는 과장된 열등감을 가진 결과로 나타나 깊은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만이 가장 우월하고 강하다는 자기중심적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정민, 2011). 이렇듯 열등감이 사회적 관심을 통해 극복되거나 보상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격 형성 과정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성격의 독특한 양상이 한 개인의 생활양식에 해당된다(노안영, 강영신, 2003).

Adler는 누구나 사회적 관심을 갖고 태어나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 계발 없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Ansbacher, 1991). 사회적 관심은 생애 초기에는 가정 안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 협력하면서 발달될 수 있다(Adler, 1931). Adler는 사회적 관심이 잘 발달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를 협동적이고 공감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Adler, 1964). 즉,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고 유능감과 함께 독립성을 가지고 싶어 하고,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며, 용기를 갖고 그들의 삶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Ansbacher & Ansbacher, 1956; Bettner & Lew, 1989), 이러한 욕구를 양육자가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지에 따라 사회적 관심의 발달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4가지 욕구를 최근 개인심리학 연구자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명명하여 핵심 감정(Crucial Cs; Connect, Capable, Count, Courage)이라고 불렀다(Lew & Bettner, 1998). 이러한 핵심 감정이 잘 충족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산, 강점을 잘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좌절을 감소시켜 인생의 주요 과업들, 예를 들어, 대인관계를 잘 하고 타인과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Kottman, 1999).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다(Kottman, 2003). 이러한 핵심 감정 개념은 커플 치료(McCurdy, 2007)와 교사 전문성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Curlette & Granville, 2014) 등에 도입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감정은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발달되어야 한다(Curlette & Granville, 2014). 청소년기는 부모의 양육을 벗어나 대인관계의 질이 확장되는 시기이므로 학교나 상담 교육 장면에서 개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만남이 증가하게 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게 되므로 가정 밖에서 사회적 관심이 발달될 가능성이 더 크다.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학교 장면에서 또래와 교사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 향상을 위한 개입이 되어야 한다(Guzick 외, 2004).

이러한 개입의 한 예로, Adler(1935)는 사회적 관심은 집단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상담 및 치료에서 핵심적 목표 또한 이런 사회적 관심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dler의 이론을 발전시킨 Dinkmeyer(1975)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집단원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기인하였고, 행동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행동의 목표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의 개발이 필요하고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가 있는 이유는 특히 또래집단 내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개인상담보다 새로운 행동의 실험과 자기노출을 더 잘하고 지도자와 집단원의 모범적 행동에 대한 모방을 통해 타인과의 대인관계 교류 방식을 알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장호, 김정희, 1992). 이러한 점에서 집단상담 혹은 훈련의 방식이 Adler의 사회적 관심을 학교 장면에서 가장 최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개입 방식일 것이다. 국외에서는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Hamm, Carlson, & Erguner-Tekinalp, 2016), 사회적 공격성을 지닌 청소년(Froeschle & Riney, 2008), 또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Barkley, Wilborn, & Towers, 1984)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심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 등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사회적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혹은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Adler의 사회적 관심 개념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소개

된 국내 연구들(e.g., 박정순, 김춘경, 2000; 신지희, 김광운, 이숙자, 2012; 정민, 2012; 홍경자, 박영준, 정수희, 2002)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아동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는 송현종과 조성은(2003)의 연구와 김미란(2006)의 두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두 연구는 열등감 감소와 격려를 사용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결과로 사회적 관심을 본 것에 불과하다.

청소년 상담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소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상담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데(김계현, 2000; 유성경, 1999), Adler 상담 이론에서 제시하는 변화에 관한 개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dler 상담 이론에서는 변화를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가 격려라고 제안하고 있다. 격려는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 자존감을 갖게 하고, 개인의 관심 영역을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시키며(Sweeney, 2005), 공동체와의 연합을 촉진시켜 현실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긍정적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Hjelle & Ziegler,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실시한 Adler 상담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심의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에게 유익한 상담 혹은 교육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연구문제 2.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Ⅱ.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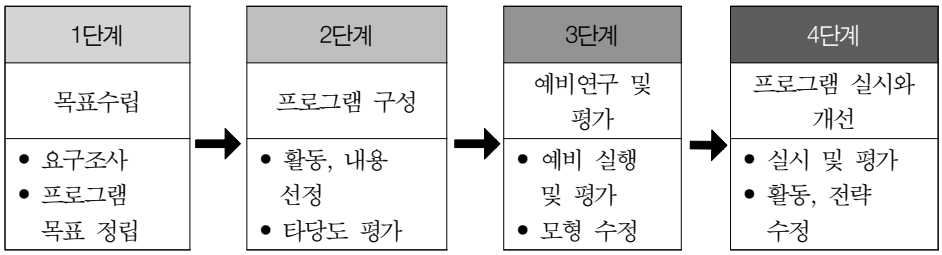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김창대 외, 2011)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림 1과 같이 김창대, 이상희, 신을진, 김형수와 최한나(2011)가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목표수립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필요와 구성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듣는 단계로, 본 연구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의 요구조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요구조사는 현재 청소년 상담에 최소 1년 이상 종사하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상담 개입 필요 문제 영역, 상담 회기 수, 상담 회기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면대면 및 E-mail로 연구 설명과 참여 동의가 완료된 사람에게만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상담 전문가 21명 중 10명(47.6%)이 1회기 50분이 적합하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적절한 회기수로는 전체 21명 중 8명(38.1%)이 8회기~10회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으로 사회성 문제를 21명중 14명(66.7%)이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적인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와 Adler 이론 및 선행 연구들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Adler 상담의 일반적인 4단계인 관계 형성, 심리적 탐색 및 해석, 재정향, 종결 단계를 따라서 구성되었다(Sweeny, 2005). 구체적으로 1회기는 관계 형성, 2회기에서 7회기는 심리적 탐색 및 해석 단계, 재정향 단계는 8, 9회기, 종결단계는 10회기에 해당된다.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 타당화 단계에서는 Adler 상담 전문가(Adler 관련 논문 및 저서 출판을 하였으며 Adler 상담 관련 워크샵 주재 경험이 있고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상담관련 학과 교수) 3인에게 프로그램 타당성 관련 평정을 받았다. 전문가 평정은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목표와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각 회기에 대한 내용을 '매우 부적합'에서 '매우 적합'까지의 5점 Likert 척도에서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내용은 평균적으로 '적합'에서 '매우 적합' 사이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제안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마무리 부분에서의 과제 제시의 필요성', '열등감에 관한 내용 강의보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대해 청소년들의 직접 탐색 활동 필요' 등이 있었다. 세 번째 단계인 예비 연구 및 평가 단계에서는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을 거쳐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3단계인 예비 연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을 예비로 실시해보고 실제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수정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프로그램을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대학원 및 학부에 재학 중인 4인(남 : 2명, 여 : 2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예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청소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과 청소년에게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이 제안되어 청소년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실시하게 되었다. 예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제안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활동 시간 분배, 활동지 수정, 용어 수정 등이 있었다. 마지막 4단계는 실시 단계로, 본 연구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이다.

2.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회기 내용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한 회기에 50분씩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주 1회기씩 실시

되었다. 실시는 상담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및 임상심리사)을 소지하고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4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연구자(1명)가 직접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1

Adler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

회기	단계	활동목표	프로그램 내용
1	관계형성	집단원 간 조력관계를 형성	- 프로그램 소개 - 집단 구조화하기 - 인터뷰 게임을 통해 집단원에 대해서 서로 알기
2	심리적 탐색 및 해석단계	출생순위 환경 이해	- 출생순위 별 소집단 만들기 - 집단 별로 대인관계 강점과 약점 토의하기
3		가족구도 이해	- 가계도(Family Tree) 그려보기 - 가족구도가 지금의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 나의 가계도와 영향에 대해 발표하기
4		열등감 이해 및 탐색	- 열등감 O,X 퀴즈하기 -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알아보기 - 해결 방법인 '사회적 관심'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기
5		Crucial Cs의 Connect (소속감) 이해	- Connect(소속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에 대한 강의 - Connect(소속감) 충족 받은 경험에 대해서 나누기 - 사회적 관심의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Connect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6		Crucial Cs의 Capable (유능감) 이해	- Capable(유능감: '나는 잘할 수 있어요!')에 대한 강의 - Capable(유능감) 충족 받은 경험에 대해서 나누기 - 사회적 관심의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Capable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7		Crucial Cs의 Count (중요감) 이해	- Count(중요감: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에 대한 강의 - Count(중요감) 충족 받은 경험에 대해서 나누기 - 사회적 관심의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Count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회기	단계	활동목표	프로그램 내용
8	재정향	자기 격려(Courage) 실시	-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 알기 - 용기를 북돋우는 격려와 격려 방법을 상황극으로 연습하기 - 자기 격려 카드 만들어 보기
9		타인 격려 실천	- 타인 격려 연습하기 - 격려 문구 붙이기를 통해 모든 집단원을 격려해보기
10	종결	집단 회기 정리	- 총 프로그램 요약 및 정리 - 집단 안에서 격려와 수용 받은 경험 피드백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Adler 상담의 단계인 관계 형성, 심리적 탐색 및 해석, 재정향, 종결 단계의 네 단계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Dreikurs, 1969). 1회기는 관계 형성 단계로 집단에 대한 소개와 구조화 그리고 집단원들이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나누며 조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Adler의 상담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탐색 및 해석 단계이다. 여기서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현재의 모습에서 생활양식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찰할 수 있다(Mosak, 1989).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가족 구도, 출생 순위와 열등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현재의 나의 대인관계에서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4회기에서는 서로의 열등감(inferiority)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Adler(1935)는 열등감이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열등감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관심을 소개하였다. 이 회기에는 열등감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집단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기로 구성하였다. 5, 6, 7회기에서는 핵심 감정(Crucial Cs)에 대해서 다루었다. Watts와 Carlson (1999)은 인간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인 핵심 감정이 충족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경험한 아동은 파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Crucial Cs는 Connect, Capable, Count, 그리고 Courage를 가리킨다. 첫 번째로

‘Connect’는 ‘나는 소속되어 있다’와 관련되며, ‘Capable’은 ‘나는 유능하다’, ‘Count’는 ‘나는 중요하다’, ‘Courage’는 ‘나는 용기 있다’는 느낌 혹은 믿음과 관련된다(Bettner & Lew, 1989; Lew & Bettner, 2010). 세 번의 회기 동안에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핵심 감정 충족 경험이 새로운 자기를 알게 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킴을 깨닫게 하여, 용기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재정향 단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격려하는 단계이다(노안영, 2005). 본 프로그램의 재정향 단계에서는 Adler가 소개한 격려기법을 사용하였다. 자기격려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이다(노안영, 정민, 2007). 타인격려는 집단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며 사회적 관심을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종결 회기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의 회기를 돌아보고, 집단 안에서 받았던 수용과 격려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Ⅲ.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1.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세운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집단 보다 사회적 관심의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1-1. 사회적 관심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수 검사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집단 보다 대인관계 지향성의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2-1. 사회적 관심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수 검사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시에 소재하는 남녀 공학의 1개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청소년 상담 전문가 요구 조사에서 유의사항으로 제안되었던 집단원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e. g., 배주미 등, 2013)에서 대인관계나 여러 위기의 면에 가장 취약하다고 조사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이다. 집단원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집단은 사회적 관심의 향상이라는 처치의 효과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통제집단, 비교집단의 세 집단으로 운영 되었다. 세 집단을 운영한 이유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관계와 같은 상담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치료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의 처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김계현, 2000). 각 집단의 인원은 12명으로 무선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하지만 여학생의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여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각 성별의 인원수는 조정하였다. 총 36명의 참가자 중 남학생은 14명, 여학생은 22명이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는 남자가 각각 5명(41.7%)이고 여자가 7명(58.3%)으로 집단이 구성되었고 통제집단에서는 남자가 4명(33.3%) 그리고 여자가 8명(66.7%)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의 집단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로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알아보았다. 집단 간 동질성은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대인관계 지향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균 및 표준편차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사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비교집단(n=12)	F
	M(SD)	M(SD)	M(SD)	
소속감- 사회적 관심 갖기	32.67(4.50)	34.92(2.35)	32.42(4.58)	1.459
대인관계 지향성	66.50(8.59)	66.00(4.53)	62.17(6.66)	1.128

3) 연구도구

(1) 비교집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 비교집단에 실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이라는 3단계의 순환적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형득, 1998).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회기 수와 회기 당 시간 그리고 주마다 실시된다는 구성은 실험집단의 것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비교집단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문수원과 이봉은과 천성문(2013)의 자기성장 집단상담 활동에 관한 메타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선행 연구들에게서 많이 활용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10회기로, 각 회기는 5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 프로그램 또한 본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Belonging/Social Interest: BSI)

BASIS-A 척도는 초기 아동기 경험을 재수집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Kern, Wheeler, 그리고 Curlette(1993)에 의해 제작된 것을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정경용, 김춘경, 2010).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는 BASIS-A라는 다섯 가지 생활양식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이다. 다섯 가지 하위 유형의 내용은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Belonging/Social Interest: BSI), 타인에게 맞춰주기(Going Along: GA), 주도권 잡기(Taking Charge: TC), 인정추구하기(Wanting Recognition: WR), 불안정성(Being Cautious: BC)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의 변화에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고 분석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10세 이전의 어렸을 때의 과거 내용을 회상하여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BASIS-A는 총 6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소

속감-사회적 관심 갖기의 문항은 8문항이다. 정경용과 김춘경(2010)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77로 나타났고, 소속-사회적 관심 갖기가 .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소속-사회적 관심 갖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73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Scale: FIRO-B)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는 Schutz(1958)가 개발한 척도를 염동수(2004)가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삭제하고 줄여서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FIRO-B 척도는 따로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청소년 5명에게 실시하고 척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때의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아 염동수(2004)가 반복 측정한 문항을 줄여 사용한 척도를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척도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하위요인은 어떤 집단 안에 소속되고자 하는 포함욕구, 의사결정 및 권력과 관계된 통제욕구 그리고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애정욕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총 합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동수(200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1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집단원을 모집한 후,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집단 참가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 프로그램과 비교집단 프로그램은 매주 1회기씩 2015년 9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었다. 집단원들의 학교 학사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보충 회기를 실시하였다. 10회기의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 사후 이후에도 의미 있는 장기적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모든 집단에게 추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집단원 중 2명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4주 후 진행된 추수 검사보다 더 늦게 검사가 실시되었다. 추수 검사가 실시된 이후에 통제집단에게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통제 집단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6회기로 축약하여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공변량 분석에서 공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사후분석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효과 비교를 선택하여 Bonferroni분석을 실시하였다.

1.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집단(실험, 비교, 통제)은 동일한 시기에 프로그램 처치에 들어가기 전 사전검사, 프로그램 처치가 종료된 직후에 사후검사 그리고 처치가 끝난 4주 후에 추수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집단	사전	사후	추수
		M(*SD*)	*M*(*SD*)	*M*(*SD*)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실험집단	32.67(4.50)	36.00(5.03)	34.42(5.50)
	비교집단	34.92(2.35)	35.25(2.80)	33.25(4.25)
	통제집단	32.42(4.58)	31.92(5.60)	32.83(5.54)
대인관계 지향성	실험집단	65.50(8.59)	70.58(8.28)	65.67(11.64)
	비교집단	66.00(4.53)	65.75(4.80)	65.42(9.33)
	통제집단	62.17(6.66)	63.58(6.78)	63.08(5.74)

1)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BASIS-A의 하위 위형인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를 이용해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향상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자기성장 집단상담을 실시한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BASIS-A의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점수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후 검사에서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점수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3.769, p 〈 .05. 세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변량분석에서 Bonferroni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종료한 4주 후에 실시된 추수검사에서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에 대한 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 = .258, *ns*.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집단 간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차이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df*	*MS*	*F*	사후검증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	사전-사후	공변인	313.578	1	313.578	25.366**	
		집단	93.196	2	46.598	3.769*	a 〉 c
		오차	395.588	32	12.362		
	사전-추수	공변인	316.840	1	316.840	18.368**	
		집단	48.719	2	24.359	.258	
		오차	551.994	32	17.250		

주. $^{**}p < .01$
a : 실험집단, b : 비교집단, c : 통제집단

2) 대인관계 지향성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자기성장 집단상담을 실시한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지향성의 점수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대인관계 지향성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실시된 사후 검사에서 대인관계 지향성 점수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3.611, p 〈 .05. 세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추수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020, *ns*.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집단 간 대인관계 지향성 차이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df*	*MS*	*F*	사후검증
대인관계 지향성	사전-사후	공변인	630.337	1	630.337	22.824**	
		집단	199.468	2	99.734	3.611*	a 〉 b, c
		오차	883.747	32	27.617		
	사전-추수	공변인	816.627	1	816.627	13.106**	
		집단	2.456	2	1.233	.020	
		오차	1993.873	32	62.309		

주. **p< .01

a : 실험집단, b : 비교집단, c : 통제집단

Ⅳ. 논 의

본 연구는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등(2011)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모형에 근거하여 4단계의 개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요구 조사 및 Adler 상담 전문가들의 타당도 작업 등을 통해 각 50분 총 10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최종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실험집단, 비교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지향성에 대한 실험, 비교, 통제 집단 간 사전, 사후, 추후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오래전부터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 Adler의 이론은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최근까지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비록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열등감 극복 및 격려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Adler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효과성이 연구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핵가족화 및 경쟁주의의 심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사고 및 행동이 증가하는 요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협동과 기여 행동을 도모하고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은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개발 단계 중 2단계에서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만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지 못한 것과 예비 연구 및 평가 단계에서도 청소년에게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회기 시간으로 50분을 꼽았으나,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회기 시간이 짧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요구 조사와 예비 연구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운영 대상의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의

사회적 관심 향상 효과는 BASIS-A의 하위 척도인 소속감-사회적 관심 갖기의 정도에서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한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1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고, 동일한 학년이다 보니 같은 학급에 실험집단, 통제집단, 비교집단의 참가자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한 집단 안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활동들을 다른 집단의 집단원들과 통제 집단의 대상자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실험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오염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계현, 2000).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자기탐색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주변 관계를 탐색해 보는 활동 등 집단 간 유사한 내용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일 수 있다. 더불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해보면, 집단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향상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Adler, 1964).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점이 원인일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태도나 감정 또는 성격 특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Adler나 Dreikurs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ASIS-A는 생활양식 성격 척도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과정에서 하위 요인으로 발견되어 개발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의 다차원적 측면을 반영한 도구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 기존 사회적 관심 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 척도가 개발되었으나(김천수, 2016),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어 활용됨으로써 보다 정교한 척도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인관계 지향성에서 자기성장 집단상담에 참여한 비교집단과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상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이 향상되어 대인관계가 바람직해지는 것과 연관된다는 박재석(2008)의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부일수록 남편 및 시댁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김미례, 노안영, 오명자, 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관심

이 높을수록 친구 및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한 연구(Gilman, 2001)와도 일치한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Daugherty, Murphy, & Paugh, 2001)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소자의 경우 재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범율은 더 낮았다.

넷째, 집단상담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수 검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dler 상담단계 중 재정향 단계에서는 변화를 위한 과제를 내주며 격려한다. 간단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과제는 내담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노안영, 2005). 궁극적으로 치료가 성공적이면 실제적인 행동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행동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 반복되어야 한다(Lundin, 1989).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과제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상담 장면 이외에서 상담 효과를 연습하고 격려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재정향 단계 및 종결 단계에서 개인이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Adler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다는 점과 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을 떠나 또래와 학교의 생활에서 꾸준히 사회적 관심이 향상이 되고 발달되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관심 향상 프로그램이 학교 상담 및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최초로 최근 개인심리학 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핵심 감정(Crucial Cs)의 개념을 이용하여 집단 프로그램에 적용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의 개인심리학 연구에서는 격려, 용기, 열등감 콤플렉스 등과 같은 고전적 개념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개인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번역이 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핵심 감정에 관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심리학에 바탕을 둔 연구를 보다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핵심 감정 개념을 다양한 영역(예: 커플 치료, 교사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연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인심리학에 바탕을 둔 상담 개입 및 연구를 실시할 때 바람직한 성격의 발달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및 분석 절차에서 연구의 한계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안에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청소년 연령의 대상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사전에 측정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높게 나왔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같은 낮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청소년 집단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진행과 동시에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과 비교집단의 자기성장 집단상담 진행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실험집단에 대한 연구자 편향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 편향을 고려한 설계를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 참가자 모집이 1개교의 학교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확산 및 모방효과가 나타났고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1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험집단 대상자 중 2명이 4주 후에 진행된 추수검사보다 더 늦게 검사가 실시되었다. 연구자의 검사가 실시된 시기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식적인 학사일정이 종료되고, 학교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수 검사의 실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측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2009).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계현 (2000). 21세기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정책의 과제와 전망. **제7회 청소년 상담학 세미나.** 9-18.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미란 (2006).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학연구,** 7(4), 1093-1106.

김미례, 노안영, 오명자 (2007). Adler의 생활양식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관심정도 및 활동수준과 주부생활스트레스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935-950.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201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창대, 이상희, 신을진, 김형수, 최한나 (2011).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김천수 (2016). **개인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관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안영 (200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정민 (2011). **개인심리학 상담 원리와 적용.** 서울: 학지사.

노안영, 정민 (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문수원, 이봉은, 천성문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분석. **상담평가연구,** 6(1), 17-40.

박재석 (2008). **대학생의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순, 김춘경 (2000). 공격적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진 놀이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놀이치료연구,** 4(1), 83-101.

배주미, 김동연,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청소년상담연구 154).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송현종, 조성은 (2003). 청소년들의 열등감 보상과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4(4), 755-551.

신지희, 김광운, 이숙자 (2012). 격려집단 프로그램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 통제소재,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9(3), 617-632.

염동수 (2004).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대인관계 유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성경 (1999). 청소년 상담연구와 상담실천의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39-150.

이장호, 김정희 (1997).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이형득 (1998). 자기성장 집단상담의 단계별 발달과정. **집단상담연구,** 1, 35-61.

정경용, 김춘경 (2010). 생활양식 척도(BASIS-A)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343-367.

정민 (2012).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격려 기법에 근거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533-553.

정민, 노안영 (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75-387.

정하성 (2008). 청소년사회관계증진 프로그램개발방향. **한국청소년보호지도연구,** 12, 61-73.

조영하, 김태준 (2010). IEA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비교 연구 : ARM 예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3), 189-217.

홍경자, 박영준, 정수희 (2002).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이 열등감 수준과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3(1), 63-80.

Adler, A. (1931).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Boston: Little, Brown, and Co.

Adler, A. (1935). The fundamental views of individual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1), 5-8.

Adler, A. (1964).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New York: Capricorn.

Ansbacher, H. L. (1991). The concept of social interest. *Individual Psychology, 47*(1), 28-46.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NY: Basic Books.

Bettner, B. L., & Lew, A. (1989). *Raising kids who can*. Newton Centre, MA: Connexions Press.

Barkley, H., Wilborn, B., & Towers, M. (1984). Social interest in a peer counseling training program.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0*(3), 295-299.

Crandall, J. E. (1980). Social interest, extreme response style, and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1), 82-29.

Curlette, W. L., & Granville, H. G. (2014). The four Crucial Cs in Critical Friends Group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0*(1), 21-30.

Daugherty, D. A., Murphy, M. J., & Paugh, J. (2001). An examination of the Adlerian construct of social interest with criminal offend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465-471.

Dinkmeyer, D. (1975). Adlerian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25*, 219-226.

Dinkmeyer, D., & Losoncy, L. (1996). *The skill of encouragement.* Florida: CRC Press.

Dreikurs, R. (1969). Group psychotherapy from the point of view of Adlerian Psychology. In H. M. Ruitenbeek(Ed.). *Group therapy today: Styles, methods, and techniques.* New York: Aldine- Atherton.

Dreikurs, R. (1971). *Social equality: The challenge of today*. Chicago, IL: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Froeschle, J. G., & Riney, M. (2008). Using Adlerian art therapy to prevent social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4*(4), 416-431.

Gilman,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rest, and frequenc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49-767.

Guzick, D. T., Dorman, W. J., Groff, T. S., Altermatt, E. R., & Forsyth, G. A. (2004). Fostering social interesting in schools for long-term and short-term outcome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0*(4), 361-378.

Hamm, J. S., Carlson, J., & Erguner-Tekinalp, B. (2016). Adlerian-based positive group counseling interventions with emotionally troubled youth.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2*(4), 255-272.

Hjelle, L., & Ziegler, D. (1981).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ersonality theory: Carl Rogers.* Singapore: Mc Graw Hill.

Kern, R., Wheeler, A., & Curlette, W. (1997). *BASIS-A inventory interpretive guide.* Highlands, NC: TRT.

Kottman, T. (1999). Using the Crucial Cs in Adlerian play therapy. *Individual Psychology, 55*, 289-297.

Kottman, T. (2003).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 (2n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Lew, A., & Bettner, B. L. (1998). *Responsibility in the classroom: A teacher's guide to understanding and motivating students.* Newton Center, MA: Connexions.

Lew, A., & Bettner, B. L. (2010). *A parent's guide to understanding and motivating children.* Newton Centre, MA: Connexions Press.

Lundin, R. W. (2001). 애들러 상담이론: 기본 개념 및 시사점[*Alfred Adler's basic concepts and implication*]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종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9에 출판).

McCurdy, K. G. (2007). Making love or making love work: Integrating the Crucial Cs in the games couples play.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3*(3), 279-293.

Mosak, H. H. (1989). *Adlerian psychotherapy.* In R. J. Corsini(Ed.). Current psychotherapy(4th ed, 65-116). IL: F. E. Peacock.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Sweeney, T. J. (2005). 아들러 상담이론과 실제[*Adlerian Counseling: A Practitioner's*

Approach)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종, 강영신, 오명자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8에 출판).

Watts, R. E., & Carlson, J. (1999).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hiladelphia, PA: Accelerated Development/Taylor & Francis.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ocial interest enhancement group program for adolescents, based on Adlerian counseling theory

Yun, Jaewon* · Kang, Young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program for social interest enhancement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uch a program. For purposes of this research, a development procedure was implemented, including a needs assessment survey for youth counselors and the creation of both the contents and processes for a group program based on Adlerian theoretical concepts. Next, the program was modifi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survey results. Finally, Adlerian counseling experts validated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the modified program.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ed of ten 50-minute sessions. A total of 36 seni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Social Interest Enhancement program), a comparison group (self-growth program), and a control group (no treatment). As a result, each group had 12 participants.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belonging/social interest subscale of the BASIS-A scale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scale before the program began, and also after the program had been completed, and 4 week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ocial interest enhance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levels of belonging/social interest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oreover, in terms

* Chonnam University, First Author
** Chonnam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lavieenrose@jnu.ac.kr

of interpersonal orientation, participants reported better scores compared to both the comparison and control group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ere revealed in all post-hoc tests. A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includes the fact that it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social interest enhancement group program for adolescents and this proved its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in fostering social interest among adolescents in their critical period for developing such social interests.

Key Words: social interest, Adlerian counseling, adolescents, interpersonal orientation, individual psychology

투고일: 2016. 12. 1, 심사일: 2017. 1. 23, 심사완료일: 2017. 2. 14